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계획 반발

주민들 “경제적 어려움 외면하는 처사” … 고성군 “기초조사 실시중 · 결정된 것 아니다”

고성군이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하수법’을 근거로 올 하반기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과액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톤당 80원 안팎이 될 것 같고, 수입은 대략 200여 건에 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6월까지 조사를 해 부과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계속

된 경기침체로 수도물 사용료도 못내는 주민이 많은데, 지하수 이용 부담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태백, 평창 등 3개 시군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고성군이 굳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현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는 지하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자기 땅에 자기 돈을 들여 관정을 파 사용하는 것인데,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주민은 또 “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했다면 많은 돈을 들여 지

하수를 팔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명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시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단순히 기초조사를 벌이는 과정”이라며 “실제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일반 가정이 아니라 콘도나 코다리 공장 등 대형업체들 위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겨울종결자

경칩이 지나도 추위가 남아있는 시기에 핀 버들 꽃이 겨울의 끝을 고한다. 불어난 강물과 나무의 유연함이 조화로운 시냇가, 이젠 완전 봄이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물가로 나아가 버드나무로 호드기를 만들어 불어보고 버들강아지 놀이도 해보자. 북한에서.

장공순 시민기자



천진초교 6학년 은순이, 방과후가 즐거운 이유는

“꿈동산 아동센터서 꿈을 키우거든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은순이(서은순, 천진초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마을에 있는 ‘꿈동산’으로 달려간다.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줘서 좋고요, 재미있게 가르쳐줘서 좋고요, 가끔 문화체험으로 서울 구

경도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은순이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꿈동산은 천진중앙교회에 설치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이다. 천진, 봉포, 청간, 용암 등 4개 마을의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29명이 이용하고 있다.

꿈동산은 지난 2005년 5월,

당시 천진중앙교회에 재직하던 이종민 목사가 설치한 ‘꿈동산 공부방’이 모태가 돼, 그해 8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했다.

코흘리개 1학년 때부터 꿈동산을 다닌 은순이는 이제 어엿한 만언니가 됐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을 대신해 어린 후배들의 숙제를 살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다독이곤 한다.

꿈동산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수학문제 풀기, 과학실험, 풍선아트, 음악, 영어, 한자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한다. ‘놀토’에는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꿈동산을 찾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나게 즐기다가 저녁밥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닐 수 없거나, 부모가 맞벌이를 해



꿈동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다.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꿈동산에는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밥을 해주는 선생님들도 많다. 조명옥 센터장을 비롯해 생활복지사 1명과 아동복지사 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늘 따뜻한 가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격증이 있는 교회 집사들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가끔 공동체 학생들도 참여해 아이들 공부를 지도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꿈동산은 고성지역에서 운영되

는 5개 지역아동센터 중 학생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반면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명옥 센터장(42세)은 “교사가 부족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어서 쉽지않은 않을 것 같다”며 “대신 지역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꿈동산 지역아동센터는 오늘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라는 신념으로 고성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름다운 동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